경주김씨 전북특별자치도 종친회 정기총회가 지난 19일 전주연가 3층 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김병래 회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김병래 회장 "회원들의 친목 · 화합에 힘쓸 것"

회장 추대에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대한컬링연맹 회장 역임하는 등 체육계 인사

경주김씨 전북특별자치도 종친회 정기총회가 지난 19일 오전 11시, 전주연가 3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종친회 차기회장에 김병래 회장을 추대했다.

김병래 회장은 자신이 회장으로 추대된것에 대해 "경주김씨 전북 종친회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전북 종친회 회원들의 친목 도모와 화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병래 회장은 전 대한컬링연맹 회장, 제4~8대 전북수영연맹 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대한컬링연맹 명예회장, 전북수영연맹 명예회장을 지내고 있는 체육계 인사다.

2019년 민간 전북체육회장에도 출마하기도 했다.

또한 김 회장은 복지TV 상임고문, 경복 아이앤씨 회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 김병래 회장 약력

전) 대한컬링연맹 회장 3연임
전) 전북수영연맹 회장 5연임
4~8대
현) 대한컬링연맹 명예회장
현) 전북수영연맹 명예회장
현) 복지TV 상임고문
현) 경복 아이앤씨 회장

▶ 부록 - 경주김씨의 유래

시조는 '김알지' … 전북 임실 등 전국 곳곳 집성촌 산재

경주김씨는 경상북도 경주시를 본관으로 하며, 김알지(金閼智)를 시조로 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성씨 중 하나이다.

'삼국유사(三國遺事)'와 '삼국사기(三國史記)'에 기록된 설화에 의하면, 김알지는 신라 탈해이사금(脫解尼師今) 때 경주 서쪽 숲속 나무에 걸린 금궤에서 발견되었다.

금궤에서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탈해이사금이 아이의 성을 김(金)씨로 하여, 후일 신라계 김씨의 시조가 되었다.

김알지의 7대손인 미추왕(味鄒王)이 왕위에 오른 이래, 56대 경순왕에까지 김씨 왕조가 계속되었다. 신라시대 이후 김씨는 600여 관향(貫鄕)으로 나뉘어졌으며, 현재 뚜렷하게 현존하는 본관(本貫)은 50여 개이다.

경주김씨는 신라 56대 마지막 왕인 경순왕의 후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경순왕의 셋째 아들인 김명종(金鳴鍾)을 1세조로 하는 영분공파(永芬公派), 넷째 아들인 김은열(金殷說)을 1세조로 하는 은열공파(殷說公派)가 대표적인 분파이다.

이외에 고려시대 문인 김인관(金仁琯)을 1세조로 하는 태사공파(太師公派), 고려 말 판도판서 김장유(金將有)를 1세조로 하는 판도판서공파(版圖判書公派), 고려시대 무신 김순웅(金順雄)을 1세조로 하는 장군공파(將軍公派), '삼국사기'를 지은 김부식(金富軾)의 증조부 김위영(金魏英)을 1세조로 하는 호장공파(戶長公派) 등의 계파가 형성되었으며, 이후 10여 개의 지파로 나뉘어졌다.

고려 시대 문신이며 역사가였던 김부식 외에, 조선 시대 좌의정 김명원(金命元), 판서 김남중(金南重), 좌의정 김사목(金思穆), 판서 대제학 김창희(金昌熙), 서예가이며 실학자였던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개화기 때의 총리대신 김홍집(金弘集) 등이 경주김씨의 후손이다.

집성촌은 경상북도 경주시 · 상주시 · 영천시 · 월성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남도 진양군, 전북자치도 임실군 · 장수군, 충청남도 보령시 · 홍성군, 충청북도 청주시 · 보은군 등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다. 북한 지역에도 경주김씨가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성씨 및 본관 집계 결과에 따르면, 경주김씨의 인구는 54만2,018가구, 173만6,798명이다.

경주김씨 외에 경순왕의 후손들 가운데 의성(義城), 강릉(江陵), 언양(彦陽), 삼척(三陟), 울산(蔚山), 나주(羅州), 구안동(舊安東), 청풍(淸風), 김녕(金寧), 도강(道康), 전주(全州), 양근(楊根), 영광(靈光), 안산(安山), 선산(善山), 상산(商山), 수원(水原), 안로(安老), 연안(延安), 순천(順天), 고령(高靈) 등을 본관으로 김씨의 방계 가문들이 형성되어 있다.

〈출처=다음백과〉